

나주시, 제21대 대선 새내기 유권자 투표 독려 캠페인

젊은 청년 세대 맞춤형 투표 독려 캠페인 전개 대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장 캠페인 열기 더해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 세대 맞춤형 투표 독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나주시 관내 예상 유권자 수는 약 9만 9970명으로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개 지정 사전투표소에서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지정 42개 투표소에서 각각 실시한다.

시는 현수막, 영상 전광판, 마을방송, 리플렛, 문자발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는 물론 청년층과 첫 투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과 함께한 현장 캠페인...“생애 첫 투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지난 22일 동신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 독려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윤병태 나주시장도 직접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투표 독려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응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나의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첫 유권자도 함께...대성



고 앞 등곳길 캠페인

23일에는 빛가람동 대성고등학교 앞에서 학생회가 주관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더욱 의미가 컸다.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대성고 교장과 교감, 학생회 소속 학생 등 20여 명이

함께해 고등학생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를 응원했다.

윤 시장은 “나주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보니 힘이 난다”며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여러분과 캠페인까지 함께 하게 되어 더없이 반갑고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가 희망찬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군, ICT 기반 한우 사육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 탄생 한우 사양환경 개선, 고흥군 동물복지형 축산의 출발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해 대서면 송유종 농가가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한우 부문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5월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가축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농가에 부여되는 제도다. 적절한 사육 공간, 위생적인 환경, 체계적인 질병 예방 시스템 등 동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성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축산에 적용해 동물의 건강 상태와 사양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송유종 농가는 “예전보다 소들이 훨씬 편안해하고 병치레도 줄었다”며, “그만큼 사료효율이 향상되고 고기 품질도 높아졌다. 동물복지 축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고흥 축산업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 치유 네 컷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완도 치유 페이 현장 안내소에 설치된 사진 인화 부스 이용객(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사진 무료 인화 부스에서 출력한 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직원에게 보여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완도 여행하고 ‘치유 네 컷’ 이벤트 참여하세요!

필수 해시태그는 #완도치유페스타, #완도치유네컷, #인증샷이벤트 이다.

사진 무료 인화 부스는 완도 해조류센터(완도읍 해변공원로 84) 내 위치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완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추억을 간직하고 완도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완도 치유페이와 관광 시설 입장료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선우 기자



광양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다자녀행복카드’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교육비, 의료비, 주유비, 외식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양시에는 음식점, 카페, 안경점, 한의원, 학원, 미용실, 화원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총 1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

광양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모집

오는 28일 간담회 개최... 다양한 업종 가맹점 유치 적극 추진

돼 있으며, 등록된 업체에는 ▲카드 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가맹점 스티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광양시 공식 SNS를 통한 신규 가맹점 집중 홍보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가맹점 수 증가와 업종의 다양화가 다자녀행복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28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061-797-4171) 또는 이메일(chaso97@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에 등록된 가맹점의 상세 정보 및 할인 혜택 내용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에 접속한 후 ‘특별한 혜택’-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향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기대한다”며 “다자녀가정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편하게 투표하세요”

중증장애인 등에 이동 편의 제공... 교통불편지역 차량 운행도

장성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관위(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약자·교통불편지역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증장애인·고령주민·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전 투표의 경우 5월 28일, 선거일 투표는 6월 2일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061-394-5300)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투표 참여도 지원한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22인승 버스 9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장성읍·동화면·삼서면·삼계면·황룡면·서삼면·북하면 10개 투표구로, 운행 노선과 시간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사고, 이상기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담양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

“농업정책보험 가입하세요!” 담양군, 보험료 최대 90% 지원

영세·고령 농가와 유기인증 농가는 전액 지원

령 농업인 가운데 경작 면적이 1만㎡ 미만인 영세 농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며 재배 농가도 자부담 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기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 역시 전액 지원 대상이

다.

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목과 시설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지역 농협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벼 재해보험은 6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병해충 특약을 선택하면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총 7종의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요즘,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